

## 칼빈의 욕망론

The Desire according to Calvin

이오갑 (그리스도대학교 부교수, 조직신학, Th.D.)

Lee, O-Kab (Associate Professor, Korea Christian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Th.D.)

### 국문초록

칼빈에 따르면, 인간은 그 본성 속에 “욕망(désir)”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으로써 더욱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욕망은 인간을 더욱 죄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 죄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죄를 벗어날 그 어떤 가능성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죽음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것처럼 칼빈은 “욕망”으로써 인간의, 특히 죄인의 존재와 삶을 뚜렷하고 특징 있게 묘사했다. 즉 그에 따른 “욕망”은 인간 실존의 비극성,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준다. 칼빈 사상 속에서 욕망처럼 죄의 역동성과 비극성, 혹은 운명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는 칼빈에 나타난 “욕망”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 이해에 접근한다. 즉 그의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욕망의 다양한 표현들과 의미들을 찾아보며, 더 나가서 욕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교만, 자기에, 그리고 노예의지 등의 주제들을 살펴본다. 그래서 욕망이 그런 것들과 함께,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 죄인에게서 어떻게 작용하며, 죄인을 어떻게 성격화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칼빈에 따른 인간

이해에 한층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가간다.

※ 주제어 : 칼빈, 죄인, 욕망, 교만, 노예의지, 자기에

### Abstract

With the 'desire' Calvin distinctively described the life and being of the man as sinner. According to him, the man sins more and more by his own desire and becomes estranged from the justice of God. The desire deeply threw him into the sin, finally making him an existence that can't do anything except the sin. The man has no any possibility to overcome sin, so he can but have the devastating life as death. The desire according to Calvin explains well the tragedy of human existence, the depth of the incorrigible sin of the humankind. I affirm anything else doesn't show the tragedy, dynamism and fatality of human sin better than the 'desire', in Calvin's theology. This study approaches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man concerning his concept of desire. And it searches the concupiscence, the pride, the narcissism, the slave will etc., concerned in the problem of the desire.

※ Key Words : Calvin, Sinner, Desire, Pride, Slave Will, Narcissism

## 1. 들어가는 말

칼빈에게서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인간 가운데 있는 의의 원초적 결여”<sup>1</sup>라고 부르는 어떤 흔적(*marque*)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은 그 본성 속에 “욕망(*désir*)”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욕망으로써 더욱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욕망은 인간을 더욱 죄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 죄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죄를 벗어날 그 어떤 가능성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죽음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그처럼 칼빈은 “욕망”으로써 인간의, 특히 죄인의 존재와 삶을 뚜렷하고 특징 있게 묘사했다. 즉 그에 따른 “욕망”은 인간 실존의 비극성,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준다. 칼빈 사상 속에서 욕망처럼 죄의 역동성과 비극성, 혹은 운명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특징들을 매우 역동적으로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그 죄에 연루되어 있고, 거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성찰하게 해준다. 그 점에서 “욕망”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칼빈의 신학을, 좀 더 좁게는 인간론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칼빈에게 나타난 “욕망”을 살펴보는 것이 그의 인간론, 특히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칼빈에 나타난 “욕망”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 이해에 접근한다. 즉 그의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욕망의 다양한 표현들과 의미들을 찾아보며, 더 나아가서 욕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교만, 자기에, 그

<sup>1</sup> J.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1560), éd. par J. Cadier, (Genève: Labor et Fides, 1951), II, 1/8, (이하 *Institution*). 칼빈의 *Institution*은 1536년 라틴어 초판과 수차에 걸친 증보판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1559년 라틴어판, 그리고 1560년 프랑스어판이 발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560년 프랑스어판을 사용한다.

리고 노예의지 등의 주제들을 살펴본다. 그래서 욕망이 그런 것들과 함께,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 죄인에게서 어떻게 작용하며, 죄인을 어떻게 성격 화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칼빈에 따른 인간 이해에 한층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가가기려고 한다.

## 2. 욕망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욕망(désir)” 또는 “욕망하다(désirer)”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원래 그 말의 기원이 되는 라틴어 동사 *desirarer*는 무엇인가 자기에 없는 것을 아쉬워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욕망이란 그 무엇인가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또는 마음이 그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욕망이란 대상을 좀 강하게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이 욕망이란 용어를 쓸 때도 역시 그런 의미로써였다.

그런데 칼빈은 “욕망(désir)”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했다. 가령 *cupidité*, *appétit*, *convoitise*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용어들은 모두 어떤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도, 칼빈 자신은 그것들을 모두 다 욕망(désir)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sup>2</sup> 나는 그 용어들을 부득이한 경우를<sup>3</sup> 제외하고는 모두 “욕망”이라고 옮긴다.

또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이 썼던 보다 기술적인 용어인 “concupiscence” 역시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특별하면서도 제한된 의미로써만 쓰인다는 점에서 “욕망”을 뜻하는 다

<sup>2</sup> *Institution*, III, 3/10, 12, 그리고 Calvin, *Sermon sur la Genèse*, 2:15-17, *Supplementa Calviniana*, XI/1, (Neukirchen: Neukirchen-Vluyn, 2000), 111 등. (이하 *Supplementa Calviniana*.)

<sup>3</sup> 가령 그 용어들이 병렬로 사용될 경우 “욕망(désir)과 욕구(appétit)...”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

른 용어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정욕”으로 옮긴다.

또한 칼빈이 욕망과 유사어로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감정이나 성향을 말하는 affection, 물욕에 가까운 avarice, 야망인 ambition, 열정인 passion, 관능욕인 sensualité, 그리고 음욕 또는 호색을 말하는 paillardise 등이다. 칼빈은 그런 단어들도 종종 욕망(désir)과 같은 의미로, 혹은 욕망에 연계된 내적 동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함께 사용했다.

칼빈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처음 창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즉 인간은 원래부터 어떤 대상에 마음이 끌리고 그것을 원하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서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죄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로 생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들은 자연의 자원이이신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창조 시에 주신 욕망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sup>4</sup> 심지어는 첫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의 잘못도 “그 열매를 욕망했던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불순종했던 데” 있었다.<sup>5</sup>

따라서 칼빈은 욕망 자체는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것”<sup>6</sup>일 뿐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부분들과 소질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영혼과 정신이라는 두 용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데,

<sup>4</sup> *Institution*, III, 3/12.

<sup>5</sup>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 열매를 욕망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일 뿐이라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등을 돌렸다는 데 있습니다.” *Sermon sur la Genèse*, 3:4-6, *Supplementa Calviniana*, XI/1, 165.

<sup>6</sup> J. Calvin, *7e sermon sur l'Harmonie évangélique, I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 Ed. par G. Baum, E. Cunitz, E. Reuss etc., (Brunschwig: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XLVI, 82. (이하 *Opera Calvini*).

정신은 지성을 포함하고 있고, 영혼은 의지와 감정들(affections)과 욕망들(désir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sup>7</sup>

그래서 욕망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억압되거나 정죄될 이유가 없다. 칼빈은 공관복음 설교에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욕망”이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천사는 ...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욕망(désir)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후손을 주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너를 반쯤은 내버린 것처럼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네게 너의 그 욕망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여태까지는 그런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sup>8</sup> 자식 없는 부모가 자식을 “욕망”하는 것은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자식에 대한 “욕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순수하고 온전한 욕망으로써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sup>9</sup> 이 인용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진리, 혹은 참된 길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통로를 얻는 특권을 가지기를 욕망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그를 껴안아야 합니다.”<sup>10</sup>

그런 욕망은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리나 가르침, 복음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에서 말한다. “입과 생각(fantaisie)으로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말해지는 것을 받아들

<sup>7</sup> 10e sermon sur l'Harmonie évangélique, *Opera Calvini*, XLVI, 117.

<sup>8</sup> 3e sermon sur l'Harmonie évangélique, *Opera Calvini*, XLVI, 31.

<sup>9</sup> 2e sermon sur l'Harmonie évangélique, *Opera Calvini*, XLVI, 20.

<sup>10</sup> 7e sermon sur l'Harmonie évangélique, *Opera Calvini*, XLVI, 78. 강조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으로서 필자가 한 것임.

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욕망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되는 교리에 부합되기를 원합니다.”<sup>11</sup>

그런데 사람들이 기특하게도 그렇게 좋은 것을 욕망한다면, 비록 그들의 욕망이나 시도가 불충분하고 잘못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칼빈은 이번에는 미가서 설교에서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욕망한다면, 그리고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지나치게 되고, 심지어는 넘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선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욕망(désir)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sup>12</sup> “우리는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게다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똑바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그분에게 맡기려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선한 의지에 완전히 맞춰나가려는 욕망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향과 그 욕망을 가질 때, 그분은 마치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 것처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줍니다.”<sup>13</sup>

그러나 칼빈에게서 욕망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현실에서 보는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의 욕망이란 곧 죄의 지배를 받는 욕망, 타락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sup>11</sup> J. Calvin, Sermon du dernier avènement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Sermon, Oeuvres de Jean Calvin III*, Ed. par A.-M. Schmidt, (Paris/Genève: "Je sers"/Labor, 1936), 269.

<sup>12</sup> 7e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e, *Supplementa Calviniana*, V, 59.

<sup>13</sup> 7e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e, *Supplementa Calviniana*, V, 60.

칼빈에 따르면, 욕망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후에는 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했으므로 우리의 활동들 속에는 언제나 무질서와 과도함만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들은 그런 과도함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욕망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다.”<sup>14</sup> 그래서 칼빈은 강단에서 외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욕구(appetit)와 우리의 욕망(désir) 안에 있는 모든 타락들 말고 무엇입니까?”<sup>15</sup>

칼빈의 설명에 따르면, 타락한 욕망은 인간의 영혼과 영혼의 부분 혹은 작용인 이성(raison)이나 오성(entendement)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혹은 대항해서 싸운다.<sup>16</sup> 또한 욕망은 인간의 의지(volonté)를 점령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것만 원하고 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의지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한 것은 아니나, 악한 욕망들(convoitises) 아래 사로잡히고 결박되어 있어서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욕망할 수 없게 되었다.”<sup>17</sup>

따라서 욕망은 악하므로 그것이 점령한 인간의 오성이나 의지 등 영혼의 모든 능력도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다. 즉 죄인은 어떤 선도 어떤 의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것처럼 죄인의 욕망은 악하고, 악한 욕망은 죄인을 더욱 죄 가운데 빠뜨리거나, 죄에 영원히 묶어 놓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 악한 욕망, 또는 타락한 욕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칼빈

<sup>14</sup> *Institution*, III, 3/12.

<sup>15</sup> 7e sermon sur l'Harmonie évangélique, *Opera Calvini*, XLVI, 82.

<sup>16</sup> 가령 *Institution*, II, 2/10, 3/1. 또한 “도둑이나 강도들 같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cupidité)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 모든 법들이 붕괴되고, 정적이 뒤집히며, 모든 의가 철폐되기를 바란다... 그 사람들은 법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들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 마치 광견병에 걸린 듯 사로잡히고 점유되어서, 이성에 대항해 싸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오성으로써 승인하는 것을 그들은 사악함이 다스리는 자기들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다.” 2/13.

<sup>17</sup> *Institution*, II, 2/12.



의 저술들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욕망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거역하려고 한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도록 인간을 부추기는 모든 욕망은 죄이며,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정욕을 낳는 부패가 죄라고까지 확신한다.”<sup>18</sup> “욕은 그렇게 타락했으므로 그것은 자신의 모든 성향들(affections)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반발한다.”<sup>19</sup> 그렇게 반항하는 욕망을 칼빈은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향들(affections)과 욕구들(cupidités), 그것들은 결박을 해놓았다고는 해도 계속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갈며, 발로 땅바닥을 긁어대는 맹렬한 야수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욕망들(désirs) 속에는 그런 반항심이 있습니다.”<sup>20</sup>

둘째, 욕망은 금지를 넘어서는, 즉 정해진 법이나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 서려고 한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적법한 것 이상으로 시도하려는 광적인 욕망(appétit)으로 불타오른다”<sup>21</sup> 칼빈은 지식욕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적법한 것을 훨씬 넘어서기까지 하는 지식의 욕망을 갖고 있다”<sup>22</sup>고 했다.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욕망하는 하와의 시선을 주석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정욕의 독으로 오염되고 물든 그 응시는 그녀의 더러운 마음을 알려주는 증인이었다.”<sup>23</sup> 심지어는 복음이나 교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진리를 왜곡하고 위조하려는 정도를 벗어난 욕망이 작용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다른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도를 넘어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sup>18</sup> *Institution*, III, 3/10.

<sup>19</sup> *Institution*, II, 3/1.

<sup>20</sup> Sermon sur la Genèse 2: 15-17, Du vendredi 22e jour de septembre 1559, *Supplementa Calviniana*, XI/1, 111.

<sup>21</sup> J. Calvin, Commentaire, Genèse, 11:7, *Commentaires de Jean Calvin*, éd par Société Calviniste de France. (Genève: Labor et Fides, 1961-), 184. 이하 이 주석은 LEF.

<sup>22</sup> Sermon sur la Genèse, 1:1-2, *Supplementa Calviniana*, XI/1, 1-2.

<sup>23</sup> Commentaire, Genèse, 3:6, LEF, 70.

야망(ambition)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그들은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들을 불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앞서 오지 않았다면 마귀는 그런 술수로써 그렇게 많이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능력을 전개해서 진리가 온전하게 존속되고 거기에 합당한 경외로써 받아지게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을 모든 조롱과 모욕하는 농담들이 많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하려는 욕망(convoitise)에 사로잡혀서, 신실하게 잘 가르쳐진 것들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사람은 전에는 좋은 단순성 속에서 가르쳐진 것을 위조하고 있습니다.”<sup>24</sup>

셋째, 욕망은 한계도 없고 만족도 없다. 다시 말해서 제한되지 않고 끝도 없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말한다. “경험에서 보듯이 그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어서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심연들이라고 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sup>25</sup> “우리의 욕망들은 만족할 줄 모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조금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sup>26</sup>

그런데 칼빈에 따르면 그렇게 불법적이며, 정도도 없고, 제한도 없는 인간의 욕망은 현실 속에서 때로 절대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서,<sup>27</sup> 부에 대한 강박적인 욕심으로서,<sup>28</sup> 이미 인용했지만, 제한 없는 지식욕으로서,<sup>29</sup> 도덕적 자기완성의 열심으로서,<sup>30</sup> 완전한 미의 추구로서,<sup>31</sup> 극도의 쾌락에 대한 갈망으로서<sup>32</sup>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서는 부에 집착하는 사람들

<sup>24</sup> 1er sermon sur l'Harmonie evangelique, *Opera Calvini*, XLVI, 5.

<sup>25</sup> 5e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e, *Supplementa Calviniana*, V, 41. 또한 칼빈은 탐욕(avarice)이 채워지지 않는 심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4e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e, *Supplementa Calviniana*, V, 200.

<sup>26</sup> Sermon sur la Genèse, 1:1-2, *Supplementa Calviniana*, XI/1, 1-2.

<sup>27</sup> Commentaire, Genèse, 14:1, *LEF*, t. I, 215.

<sup>28</sup> *Institution*, III, 3/10, 7/8.

<sup>29</sup> Commentaire, Genèse, 3:5, *LEF*, t. I, 17, Jean, 3:9, t. II, 79, *Institution*, II, 2/2.

<sup>30</sup> *Institution*, II, 3/4, III, 7/2.

<sup>31</sup> Commentaire, Genèse, 3:21, *LEF*, t. I, 89.

의 물욕에 대한 사회성 짙은 그의 설명만을 들어본다. “그러나 그들은 고리대금으로써, 약탈과 불법적인 모든 방식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뼈까지 갉아먹고, 삼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너무나 뒤틀려있어서, 가능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빛과 땅과 물과 햇볕까지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같은 공기와 같은 햇빛을 즐기는 것을 배 아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다면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공유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싶어 할 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입니다. 그런 괴물들은 인간의 반열에 포함되거나 인정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야생 짐승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입니다.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같이 될 정도로 완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sup>33</sup>

그렇게 묘사되는 욕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부에 대한 것이든, 권력에 대한 것이든, 또는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한 것이든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확장시키거나 극대화함으로써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욕망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도 없이 추구한다. 욕망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 죄인의 끊임없는 목표 추구로서, 그것의 주체를 죄의 극단까지 몰고 간다. 그러므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만다. 즉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욕망의 지배를 당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점은 인간의 노예의지와 관계된 것으로서,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인간의 그런 욕망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들과 논의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sup>32</sup> *Institution*, III, 3/10, *ibid.*, 19:40, 292.

<sup>33</sup> Sermon on the Acts of the Apostles, 5: 1-6, *Supplementa Calviniana*, 124.

### 3. 정욕

칼빈은 욕망을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정욕(concupiscence)”이라는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칼빈에 따르면, 정욕은 인간이 창조 시에 받은 욕망은 아니다. 오히려 정욕은 “고삐풀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sup>34</sup> 감정일 뿐이다. 그래서 정욕은 인간의 모든 종류의 욕망들, 감정들을 한꺼번에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의 욕망, 인간의 타락한 욕망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칼빈은 그 정욕으로써 죄인의 욕망을 매우 특징적으로 설명했으며, 그 점에서 그는 정욕을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욕망들을 대표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정욕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그것을 정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너무 부당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양해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덧붙여야 하지만 말이다. 인간의 모든 부분들, 오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지에 이르기까지, 영혼에서 육에 이르기까지 그 정욕으로써 썩게 되었고, 완전히 채워졌다. 또는 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그 자체가 정욕과 다름이 아니다.”<sup>35</sup> “인간 자체가 정욕”이라는 칼빈의 말은 과격하게 들리긴 해도, 결국 그것은 죄인은 욕망의 덩어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죄인은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오직 악한 것만을 원하고 행할 뿐이라는 지독한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혹은 그 전체에 정욕, 즉 악한 욕망이 있다.

그런데 칼빈에 따르면, 정욕 역시 고갈되지 않으며, 만족할 줄도, 멈출 줄도 모른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그 부패는 우리 안에서 결코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열심히 새로운 열매들을, 다시 말해서 육의 행위들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곧 언제나 불꽃을 피우고 있는 맹렬한 화로나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는 샘과 같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죽음의 몸으로부터 해방하

<sup>34</sup> *Institution*, III, 3/12.

<sup>35</sup> *Institution*, II, 1/8.

게 하는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때까지는, 정욕은 그들에게서 결코 죽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sup>36</sup> 따라서 정욕은 그것의 주인을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 간다.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자신들의 타락을 점점 더 넓혀나가고, 심화시켜나간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정욕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이 사용했던 용어이다.<sup>37</sup> 그는 죄를 정욕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에게는 정욕이 죄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 용어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죄의 원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그(아우구스티누스)와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거슬러서 행하고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convoitise*)이 죄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정욕을 일으키는 타락(*perversité*)을 죄라고 확언한다.”<sup>38</sup> 다시 말해서 정욕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에 보다 더 앞서는 죄, 곧 타락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에 따르면 정욕은 죄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칼빈에게서는 정욕이나 욕망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보았듯이, 칼빈에 따르면 정욕은 타락한 욕망이다. 욕망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욕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이었다. 즉 욕망이 죄의 원인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그에 앞서 최초 인간들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욕망이 타락했던 것은 불신앙 때문이라고 보았다. “불신앙은 야망(*ambition*)에 문을 열었고, 그리고 야담과 허와가 욕망(*cupidité*)이 그들을 이끄는 대로 정도를 넘어 덤벼들었던 데서 보듯이, 야망은 교만과 허영의 어미였다.”<sup>39</sup> 칼빈은, 우리

<sup>36</sup> *Institution*, IV, 15/11.

<sup>37</sup> St. Augustin, *Contre deux Lettres des Pélagiens*, à Boniface, livre IV, ch. x, 27 s., ch. xi, 29 ss., *Contre Julien*, livre II, ch. III, 5 à VIII, 30 등. Cf. *Institution*, III, 3/10, 편자 J. Cadier의 주 4.

<sup>38</sup> *Institution*, III, 3/10.

<sup>39</sup> *Institution*, II, 1/4.

가 보았듯이, 그 불신앙을 바로 근본적인 죄의 원인으로 간주했다.<sup>40</sup>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 정욕, 또는 욕망들은 교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방금 인용한 데서 보듯이 “야망은 교만과 허영의 어미”라는 말도 그 두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욕과 그렇게 가까운 교만은 무엇일까?

#### 4. 교만

에밀 두메르그는 칼빈의 죄론을 전개하면서 “교만(orgueil)”과 “정욕”을 대비시켜 설명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에서 죄의 원인을 정욕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정욕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놓지는 못하는 우연적인 잘못(오류)만을 만들어 낼 뿐이다.” 오히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만이 모든 악의 시초”였다. “본질적인 것을 잊지 말자. 교만은 모든 인간에 개입되어서 인간의 본성 전체를 바꾸어 놓은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죄 중의 죄이다.”<sup>41</sup> 두메르그는 칼빈에게서 죄의 원인이 “교만”이라고 파악했으나, 앞에

<sup>40</sup> Cf. 앞의 주 5).

<sup>41</sup> 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IV, 141. 그의 설명을 들어 보자. “만일 칼빈에게서 최초의 죄가 교만이라면, 로마 가톨릭에서 최초의 죄는 정욕이다. 칼빈은 이 오류와 싸운다. ‘하나님이 그의 취미(friandise) 때문에 그렇게 벌을 내렸다는 그런 일반적인 견해는 너무나 유치하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그가 바랄 수 있었던 기쁨들(délices, 진미, 단맛)은 그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거기에는 ‘순종의 시험’이 있었다. 그것이 도덕적 존재의 의지의 밑바닥에 관계된다. ‘아담은 자기 조건에 만족하면서 과도하고 광적인 욕망으로써 더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되었었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악들의 시작이었다... 파멸의 시작은 불복종이었다.’ - ‘그것은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중오할만한 범죄로서... 전 인류에 대해 너무나 무서운 복수를 유발하고, 거기 휩싸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그의 내적인 욕망이나 관능욕(감각욕)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악한 불경건이었고... 그래서 교만은 마음의 밑바탕에 들어와 있다.’ 본질적인 것을 잊지 말자. 교만은 모든 인간에 개입되어서 인간의 본성 전체를 바꾸어 놓은 죄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그것

서 보았듯이 “불신앙”으로 봐야 한다. 칼빈은 “정욕”과 “교만”이 모두 불신앙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어쨌든,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 두 가지는 죄인을 성격 짓는 가장 중요한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정욕과 교만, 그 둘은 어떤 관계인가? 두메르그가 보았듯이, 교만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본질적인 죄이고, 정욕은 우연적인 또는 우발적인 죄들만을 만들어낼 뿐인가?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정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들은 단지 이런 저런 잘못과 오류, 죄들을 만들어내는 부수적이고 덜 심각한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교만이 본질적인 죄의 원인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두메르그가 그렇게 보았던 것은 다소 통속적인 “로마 가톨릭-정욕”, “프로테스탄티즘-교만”이라는 대칭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신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메르그의 의도와는 달리, 칼빈에 따르면, 정욕과 교만 그 둘만 보면, 정욕이 교만보다 우선적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42</sup> 즉 정욕이 교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저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둘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병렬의 관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칼빈은 신명기 설교에서 말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야망, 그리고 욕망은 그들의 모든 정신들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sup>43</sup> 그는 창세기 설교에서도 말한다. “또한 교만이 불신앙과 거역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는 멸망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정도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는 어리석은 야망과 넘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sup>44</sup>

은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죄 중의 죄이다. 반면에 정욕은 하나의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놓지는 못하는 우연적인 잘못(오류)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성 바울과 펠라기우스의 차이가 드러난다.”

<sup>42</sup> Cf. *Institution*, II, 1/4.

<sup>43</sup> 1er sermon sur la ch. 2 du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 11.

<sup>44</sup> 13:4-6, *Supplementa Calviniana*, XI/1, 166.

또한 공관복음서 설교에서도 말한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성향들(affectations)에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무겁고 딱딱한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속이고 취하게 만드는 미친 듯한 자만심(outrecoissance)이 있습니다.”<sup>45</sup> 그런 본문들은 칼빈이 교만과 정욕을 어떤 인과관계로써 묶어놓기 보다는, 죄인에게서 일어나는 죄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들은 같은 맥락에서 나란히 등장하고 있고, 때로는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묘사하고 있다.

칼빈에 따르면, 첫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거나,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했다.<sup>46</sup>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게 욕망했을까, 아니면 그렇게 욕망해서 교만해졌을까? 그것을 따지는 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끝없는 논쟁으로 들어갈 뿐이다. 무엇보다도 칼빈은 정욕이 그렇듯이 교만도 역시 “모든 악의 시초”<sup>47</sup>라고 확신했다. 그 점에서 교만이나 정욕은 깨끗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 들은 인간들의 생각과 의지에 작용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죄 가운데로 몰고가는 것이다.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자기를 헛되이 높인다. 혹은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욕망한다. 결국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교만한 인간이고, 교만한 인간은 정욕의 지배를 허용한다. 그래서 그 들은 죄인들을 끌고 가는 바퀴들과 같은 병렬의 관계, 혹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정욕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칼빈에 따른 죄인으로서의 인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sup>45</sup> 3e sermon sur l'Harmonie evangélique, *Opera Calvini*, XLVI, 28.

<sup>46</sup> Cf. Comment. Genèse 3:5, *LEF*, t. I, 70.

<sup>47</sup> *Institution*, II, 1/4.



칼빈에 따르면, 교만이란 허용된 정도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 법, 금지를 넘어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 점에서 곧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뒤집어 놓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sup>48</sup> 그들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계들, 경계들, 질서들을 개의치 않고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면서 동시에 무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한 인간은 신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기까지 한다. 자기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격상시킨다. 칼빈은 신명기 설교에서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교만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입맛과 입장에만 맞게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적인 감각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파악했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sup>49</sup> 인간은 자신들의 의도나 생각을 벗어나는 신을 배제하고,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입장을 동조하는 신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곧 인간이 신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것이며, 자신을 신격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는 신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고 지배하고 통제한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교만한 인간의 죄이다.

그 결과, 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한다. 즉 교만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이나 이성 따름의 판단을 절대화한다. 칼빈은 말한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 안에 어떤 이성을 가졌다고, 그리고 ... 스스로 지배하기에 아주 충분하다고 으스대고 있다는 점입

<sup>48</sup> 1er sermon sur le ch. 2 du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 148.

<sup>49</sup> 5ème sermon sur le ch. 4 du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 148.

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할 때, 게다가 그것을 자기들의 고유한 망상에 따라서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sup>50</sup>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소리 외에는, 또는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것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 타자의 말씀으로서, 즉 그들을 벗어나는 존재로서 다가오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망상 속에 가두어 버린다. 또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변형시킨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언제나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바르며,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처럼 교만한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신마저도 자기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그가 자독한 자기애, 자기도취, 혹은 자기집착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다음 항목의 주제이다.

## 5. 자기애

칼빈이 현대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주제일 것만 같은 “자기애 (amour de soi)”를 이미 500년 전에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더군다나 칼빈은 그것을 매우 자주 말했고, 그것도 특징적으로, 죄인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으로써였다. 그런 점에서 칼빈의 ‘자기애’는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듯이, 예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그것은 예수가 ‘자기애’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인

<sup>50</sup> 1er sermon sur le ch. 4 du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 107.

정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 에리히 프롬 같은 사람은 자기애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칼빈도 과연 그렇게 볼까?

한 마디로 말하면, 칼빈은 자기애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에게서 인간의 자기애는 버려야 하는 것일 뿐이다. 그가 그렇게 본 것은 그가 자기애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죄와 관계되었을 때의 자기애, 죄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자기애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즉 그의 표현대로 “완전히 미친 자기애와 너무나 맹목적인 감정들인 상승욕(hautesse)과 야망”<sup>51</sup>이 문제였던 것이었다.

칼빈에 따르면, 자기애는 죄인의 본성에 관계된 문제였다. 그는 말한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너무나 우리들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끌어당긴다.”<sup>52</sup>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듯이 타락한 사랑이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광적이고 위험한 감정이다.”<sup>53</sup> 칼빈이 바벨탑 사건에 관해 했던 얘기는 그런 자기사랑, 자기추구의 단적인 예가 된다. “세상의 광증은 언제나 하늘을 무시하고, 헛되고 덧없는 것들만이 있을 뿐인 땅 위에서 불멸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시도들과 소원들은 땅 위에서 (자기들의) 이름과 명성을 얻으려는 것 외의 다른 목표를 갖지 않는다.”<sup>54</sup> 그런 자기사랑은 또한 자기 성찰이나 비판이 전혀 없는 타인에 대한 무자비함이나 가혹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오류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류들을 우리 이웃들 속에서는 알아보면서도 말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립니다. 누가

<sup>51</sup> *Institution*, II, 11. “그러나 나는 단지, 완전히 미친 자기애와 너무나 맹목적인 감정들인 상승욕(hautesse)과 야망을 벗어나서, 성서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 봐야 한다는 것만을 요청한다.”

<sup>52</sup> *Institution*, III, 7/5.

<sup>53</sup> *Ibid.*, 12/5.

<sup>54</sup> *Commentaire*, Genèse, 11:4. *LEF*, 182.

우리에게 (직접) 가한 잘못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찮은 것 하나를 거둬가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정도도 못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여깁니다.”<sup>55</sup>

그래서 자기에는 타락한 욕망과 마찬가지로 모든 악과 죄의 뿌리로 간주된다. 칼빈은 미가서 설교에서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탐욕(avarice)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애에 기울어진 사람은 그의 이웃들을 결코 고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sup>56</sup>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인식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고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오직 악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모든 죄악의 심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만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하고, 또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sup>57</sup> 여기서 보듯이,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뿐이어서, 그것은 죄악의 심연이다. 즉 악한 욕망이 그렇듯이 자기애도 역시 악의 뿌리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자기애는 타락한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욕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내적 상태 혹은 운동이다.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예찬하고 높이며, 스스로 신적 위치까지 올라가려는 점에서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앞에서 보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미워한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로 높이며, 그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심

<sup>55</sup> 22ème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e, *Supplementa Calviniana*, V, p. 186.

<sup>56</sup> 5e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e, *Supplementa Calviniana*, V, 42.

<sup>57</sup> 14e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e, *ibid.*, 118.

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소유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그것은 교만과 다름이 아니다.

칼빈은 자기애를 교만과 동일시했다. “우리들 모두는 자기애에 빠져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 위로 자기를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떨치기 위한 좋은 이유를 찾으려고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할만한 어떤 것을 주셨다고 해도, 즉시 그것을 기화로 우리 마음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허영에 부풀뿐만 아니라 거의 교만으로 터질 지경이 되는 것이다.”<sup>58</sup>

그러므로 칼빈에게서 자기애는 욕망과 교만과 함께 나타나고 작용함으로써 죄인을 지배하는 죄의 양상이기도 하면서 깊은 뿌리와 같다. 그것은 죄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타락한 죄인에게서 그를 더욱 왜곡되고 잘못되게 하는 동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 몰두하게 한다.

칼빈에게서 죄인은 바로 그런 자기애, 그리고 정욕과 교만으로 이뤄지는 그런 구조에 갇혀 있는 인간이다. 인간이 참된 삶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죄의 구조를 벗어나야 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고, 운명이다. 즉 죄인은 결코 죄를 벗어나거나 극복할 수 없다. 정욕과 교만과 자기애로 나타나는 인간의 죄는 그만큼 뿌리가 깊고 치명적이다. 그것들은 이미 인간을 지배하고 자신들에게로 예측시키고 맡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종교개혁자는 인간의 노예의지(*serf-arbitre*)를 말하게 된다.

<sup>58</sup> *Institution*, III, 7/4, cf. 7/2.

## 6. 노예의지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마르틴 루터와 함께, 노예의지가 죄인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확신했다. 물론 칼빈은 자기의 저술들 속에서 노예의지(*serf-arbitr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것을 매우 자주 말했다. 그가 인간이 죄의 노예상태 속에서, 그 명에 를 지고 산다고 강조했다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칼빈에 따르면,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귀의 명에 아래에서 산다.”<sup>59</sup> 의지가 인간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도, “그의 순수한 감정의 의지는 죄에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로 서둘러서 달려가기까지 한다.”<sup>60</sup> 그 점에서 인간은 죄의 노예이다. 칼빈은 노예의지를 에집트의 포로생활과 비유하면서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집트 국가로부터 이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 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것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죽음의 밧줄에 꾀꾀 묶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의 노예들입니다.”<sup>61</sup>

그처럼 칼빈에게서 인간은 다름이던 “사탄의 무서운 지배 아래 억류되어 있는”<sup>62</sup> 또는 “사탄에게 묶여 있는 노예들”<sup>63</sup>이다. 인간은 완전히 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는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의지가 더 이상 아니다. 그것은 오직 죄지를 자유만을 가지는, 악 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의지이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자유 의지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의지이다.

칼빈은 인간의 그런 조건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말했다. “우리들은 우

<sup>59</sup> *Institution*, II, 3/5.

<sup>60</sup> *Ibid.*

<sup>61</sup> 22e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e, *Supplementa Calviniana*, V, 182.

<sup>62</sup> *Commentaire*, Jean, 14: 30, *LEF*, 411.

<sup>63</sup> 4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II, 61.

리의 자연적 조건이 어떤 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죄와 죽음의 학정으로써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는 하지만, 그것은(사탄)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더러운 것 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주받았고, 그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는 가련한 짐승과 같습니다.”<sup>64</sup>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서운 무질서입니다! 만약 하늘과 땅이 그렇게 뒤섞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에게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크고 방대한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죄에 예속된 인간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노예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의 집합입니다. 거기에는 암흑밖에 없으며, 부당한 것 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저주 밖에 없습니다.”<sup>65</sup>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그 스스로가 거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의 의지는 완전히 죄에 기울었기 때문에, 그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도 악이고,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틀린 것이다. 그가 옳은 것을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는 결국 ‘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은 탄식한다. “모든 곤궁들의 가장 깊은 심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타락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무지이고 엉터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들과 감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저항할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죄의 저주받을 노예상태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는 악을 가져오는 것 밖에 모릅니다.”<sup>66</sup>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심화시키고, 악을 강화하게 될 뿐이다. 칼빈은 말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악을 증가시킬 뿐이고, 잘못에 잘못을 더하며, 오류에 오류를 더하며, 더 큰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갑니다.”<sup>67</sup>

<sup>64</sup> 3e sermon sur la passion de Jésus-Christ, *Opera Calvini*, XLVI, 866-867.

<sup>65</sup> Sermon sur la Genèse, 1:26-28, *Supplementa Calviniana*, XI/1, 59.

<sup>66</sup> Sermon sur la Genèse, 3:1-3, *Supplementa Calviniana*, XI/1, 150.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면, 개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칼빈은 사람들이 흔히 죄에 대한 책임을 원죄에다 돌린다든지, 마귀에다 돌린다든지 혹은 더 소급해서 하나님에게다 까지 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칼빈은 그것을 기독교강요 2권에서 자유의지의 타락에 관계된 장들에서,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강제”와 “필연”을 구분해야 할 것을 설명하면서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망에 이끌린다. 그가 죄를 짓는 것은 “필연”이긴 하나 “강제”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즉 자신의 자발적 의지, 자신의 욕망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분을 잘 지켜야 한다. 즉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후에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자기 마음과 다르게 짓는 것이 아니고, 강제에 의한 것도 아니다. 나는 말한다. 또한 그는 폭력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서 의해서 죄를 짓는다. 그는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고유한 욕망의 운동으로써 죄를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은 너무나 타락해서 그는 오직 악으로만 감동되고, 재촉되고, 이끌릴 뿐이다.”<sup>68</sup>

## 7. 결론에 대신해서

이상에서 살펴본, 칼빈에게 나타난 인간의 욕망과, 그것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다시 한 번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여기서는 그의 논의들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는

<sup>67</sup> 4e sermon sur la passion de Jésus-Christ, *Opera Calvini*, XLVI, 877.

<sup>68</sup> *Institution*, II, 3/5.



것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칼빈에게 나타난 인간의 내적 역동성의 중심은 욕망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욕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말했다. 그래서 욕망은 그의 인간론을, 특히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게 해주는 데 열쇠와 같은 필수적인 모티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칼빈의 욕망은 그것 자체가 결정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현대적인 의미로 그가 “범욕망설”을 주장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에게서 욕망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유일무이한 인간의 근원, 인간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동력은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인간 행위의 동력, 인간의 자유 행사의 동기는 불신앙이었고, 불신앙으로 인한 타락이었으며,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인간의 욕망은 가동되었고,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로 욕망은 그렇게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필연적인 - 그러나 각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지 않은 - 양상과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고도 표현되었던 것이다.

칼빈에게서 욕망은 교만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에게는 욕망이 교만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 본문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면서 인간의 동일한 죄를 이렇게 저렇게 구성한다. 욕망은 인간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까지 높이고, 타자를 지배하고 소유하게 하는 내적 동력이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다. 혹은 교만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다. 그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죄인을 자기 상승, 자기 교양, 자기 절대화의 인간. 다시 말해서 자기애의 인간으로 결정짓는다. 자기애는 언제나 자기만을 향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높이는 감정이다. 그래서 그것 역시 욕망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면서, 죄인의 성격을 명시해주는 것이다.

칼빈의 욕망론은 그의 인간론을 매우 깊이 있게 해준다. 칼빈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강조하고, 그 비극성을 드러낸다. 그 중심에 죄인의 욕망, 또는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으로써 죄인은 하나님과 이웃들을 포함한 타자들과 끊임없이, 끝도 없이 불화하고, 투쟁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오갑, *L'Anthropologie de Jean Calvin, l'homme dans la tension bi-polaire entre le Deus maiestatis et le Deus nobiscum*, thèse de Doctorat présentée à Institut Protestant de Théologie. Montpellier, 1992.
- \_\_\_\_\_, "Deus maiestatis와 Deus nobiscum 사이의 양극긴장 속에 있는 인간 - 칼빈신학의 인간학적 구조", 『신학논총』 제 2집, 1996: 211-230.
- \_\_\_\_\_, "인간론 - 칼빈에 따른 창조의 빛에서 본 인간",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54-189.
- \_\_\_\_\_,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조직신학 논총』 제 3집, 1998, 109-128.
- \_\_\_\_\_, "칼빈의 종말론", 『말씀과 교회』 30호, 2001, 34-71.
- \_\_\_\_\_, "칼빈의 신론 - 초월과 임재의 변증법적 하나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35집, 2004, 99-126.
- Calvin, J.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60). éd. par J. Cadier,

- Genève, Labor et Fides. 1955-1958. 참고, 국역으로는 김문제 역. 『기독교강요』. 서울: 세종문화사, 1974 등.
- \_\_\_\_\_, *I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Ed. par G. Baum, E. Cunitz, E. Reuss etc., Brunshwig: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 \_\_\_\_\_, *Commentaires de Jean Calvin*. éd par Société Calviniste de France, Genève: Labor et Fides, 1961-.
- \_\_\_\_\_, *Commentaires sur le livre des Pseaumes*. 2 vols, Paris: Meyrueis et Compagnie, 1859.
- \_\_\_\_\_,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4 volumes, Toulouse: Société des Livres Religieux, 1892-1894.
- \_\_\_\_\_, *Sermons in Opera Calvini*.
- \_\_\_\_\_, *Sermons in Supplementa Calviniana*. Neukirchen: Neukirchen-Vluyn, 1936-.
- \_\_\_\_\_, "Confession de foy au nom des Eglises réformées du Royaume de France... 1562" in *Oeuvres françaises*. Paris: Librairie de Charles Gosselin, 1842.
- Cadier, J.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을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Doumergue, 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 \_\_\_\_\_, *Le caractère de Calvin - L'homme, Le Système, L'Eglise, L'Etat*. 이오갑 역.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Dowey Jr. E. A.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4.
- Engel, M. P. *John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1983.

Par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신학입문』.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2.

F.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e  
éd., Genève: Labor et Fides, 1985. 국역: 김재성, 『칼빈, 그  
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